

논문제목	국문제목: 창업생태계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 GEM자료를 중심으로		
	영문제목: Analyz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cosystem on Entrepreneurship Activities: Focus on GEM Data		
원고의 종류	이론연구(0)현장연구()	심사의 종류	일반(0)지급()

창업생태계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GEM 자료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cosystem
on Entrepreneurship Activities: Focus on GEM Data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 | V. 결론 및 한계점 |
| III. 자료와 분석방법 | |

국 문 요 약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인이 더 이상 국가 주도가 아닌 기업가정신을 지닌 창업가에게 있음을 발견하였다. COVID-19로 인한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기업가정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각국은 민간주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GEM)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집단을 통해 조사된 고소득국가의 창업생태계 환경이 창업활동 활성화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2000년에서 2022년까지 23년간의 조사된 고소득국가의 GEM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세금 및 관리, 정부창업프로그램, 문화와 사회적 규범이 고소득국가 창업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부정책 및 지원과 물리적·서비스 인프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중위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가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기업가정신,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창업활동, 창업생태계, 창업정책

ABSTRACT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world has discovered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revitalizing a country's economy lies not solely in government initiatives but increasingly in entrepreneurs with an entrepreneurial spirit. Even amid the unprecedented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COVID-19, the entrepreneurial spirit, which identifies opportunities within crises, has consistently grown. Countries worldwide have implemented support and policies to foster a privately-led entrepreneurial ecosystem for economic activ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tiva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high-income countries by examining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environment surveyed by experts based on data from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Utilizing GEM data from 2000 to 2022, spanning 23 years of research on high-income countr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ax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entrepreneurship programs, and cultural and social norms positively influence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high-incom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policies and support, as well as physical and service infrastructure, exhibit a negative impact.

Through this research,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will assist in guid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particularly for middle-income and low-income countries, aiming to enhance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the future.

Key Words : Entrepreneurial spirit,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Entrepreneurial activities, Entrepreneurial ecosystem, Entrepreneurship policy

I. 서론

기업가정신은 창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OECD,1994;Acs,1999) 또한 기업가정신은 자본의 물리적 생산요소와 기술의 개발 이외에 중요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분석되고 있다. (Audretsch and Thruik ,2001;Salgado-Banda,2005)

현대 국가 발전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두되었다. 2011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가 비전으로 ‘창업 국가 미국(Start-up America)’를 제시하며 경제 위기의 생존전략으로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유럽연합도 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배포하였다. (이민규,2013)

한국은 2000년 초반 벤처 열풍이 꺼진 후 주춤했던 기업가정신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아래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대학 등이 협력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실현하며 개방과 혁신, 생태계, 국제화는 보다 성숙한 창업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는 각국의 창업생태계를 분석한 지표들을 통해 나타난다. (배종태,2022)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은 2020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에서 세계 270개 도시 중 서울을 20위로 평가했고 (중소벤처기업부,2021),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조사 대상 51개국 중 2021년 6위, 2022년 10위로 보고된다. (GEM,2022/2023)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유니콘기업은 2022년 기준 22개 사로 성장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왔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실리콘밸리(SVB) 파산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눈앞에 두고 있다.(BBC NEWS 2023) 연속된 위기로 인해 2023년은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GEM은 1999년 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비즈니스 환경을 직면할 수 있다 예측했다. (GEM,2023)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업가정신이 높으면 활기찬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창업 활동 활성화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Audretsch and Thruik ,2001;Salgado-Banda,2005) 과거의 경험으로 학습하였기에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른 GDP \$4000 이상 22개 고소득국가의 창업 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창업생태계 요인을 GEM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제시하고, 장단기적으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 활동 활성화는 GEM의 APS 조사를 통해 집계

된 창업 42개월 이하 사업을 소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지수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 12개의 창업생태계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1999년 이후 매년 각국 기업가의 창업환경과 활동을 측정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의 의미를 문헌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예측되는 창업생태계 요인들을 도출한다. GEM 데이터가 조사·분석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22년까지 23년간의 자료를 취합하여 정부의 지원 및 창업 인프라, 세금 및 규제, 창업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R&D 이전과 창업 활동 지수 TE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위기의 상황이나 중·저소득국가들이 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2.1.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

2.2.1.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업가정신 지수로 런던 경영대학(London Business School)의 Michael Hay 교수와 뱀슨대학(Babson College)의 William Bygrave 교수가 창업과 관련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관된 데이터 설문조사 방법을 도입하여 1999년 이후 매년 글로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GEM이라 칭하며 GEM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APS(Adult Population Survey)와 전문가 설문이 진행되는 NES(National Expert Survey)로 나누어 시행한다.(박선영,2019)

보통 APS의 경우 국가별로 16~64세 이후 2,000명 이상 일반성인을 표본 추출하여 62개국에서 설문을 수행하며, NES는 국가별 최소 36명의 기업가정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다. (Amorós and Bosma,2013) NES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의 설문을 통해 수행하는 조사로써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재무 환경, 정부 정책,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창업 교육 및 훈련 등 창업생태계에 대한 주제와 창업 기회, 창업을 위한 능력과 지식, 창업가의 사회적 이미지 등 기업가정신에 대한 2가지 큰 틀의 주제로 구성된다. (반성식 외, 2013) 주제에 따른 측정항목 분류는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GEM 창업가정신 연구 주요 측정항목

항목	측정항목
창업가적 태도	기회인식 정도 / 역량인식 정도 /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에 대한 인식 /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태도 기업가를 높이 평가하는 태도 /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언론의 관심
창업가적 활동	초기 창업활동지수(TEA) / 중견기업 비율(42개월 이상 유지기업 비율) 사업 중단 비율 (12개월 이내 폐업 비율) / 일자리창출비율 (EEA) 사회적 기업 창출비율(SEA) / 창업활성화 정도 (기회인식 창업 대비 생계형 창업 비율) 여성창업비율 (여성창업 대비 남성 창업비율) / 여성기회창업비율 (여성기회창업 대비 남성 기회창업비율) 높은 일자리 창출 비율 (6명 이상 고용 비율) 혁신창업 비율 / 4차 산업 창업 비율

※출처:GEM Global Report(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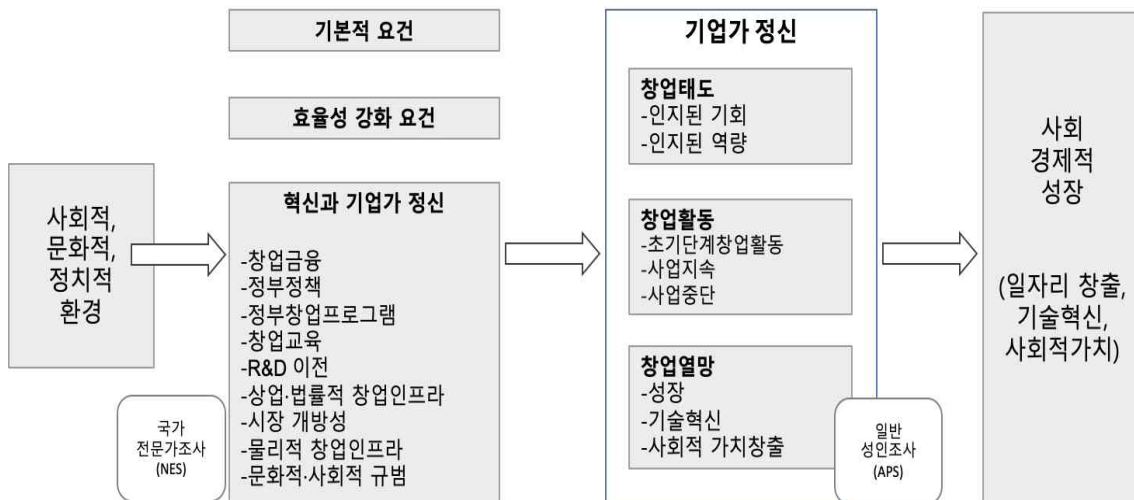
GEM 연구의 수행 목적은 기업가적 활동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소 등 창업 활동에 대한 태도, 활동 및 열망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공식적 창업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창업 활동 정보를 포함한 설립 초기 단계(42개월 미만)부터 안정화된 중견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GEM 연구는 80여 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1999년 이후 매년 통일된 설문으로 방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각국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기업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 연도별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데이터이다. (박선영,2019)

2.2.2. EFC(Entrepreneurship Framework Conditions) 연구 모형

GEM은 창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 여건들을 개념화하여 아래 [그림2-1]과 같이 EFC(Entrepreneurship Framework Conditions)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Minniti et al. 2005) EFC 연구 모형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성장은 새로운 기업의 등장으로 촉진된다. 전체적인 GEM 데이터에서는 기존 기업의 활동에 의한 성장의 요인을 인정하나, EFC 모형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 새로운 시장 기회와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에 의해 촉진된다고 가정한다. (Venkataraman 1997; Shane and Venkataraman 2000) 기회의 인식과 활용을 위한 기업가적 역량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 요소는 FEC(기업가정신 프레임워크 조건)로 구성되어 있다. EFC 모형의 첫 번째 요건은 '기본적 요건'으로 기관들, 인프라 구조, 거시 경제적 안정성, 건강 및 초등교육이 있다. '효율성 강화 요건'으로는 고등교육 및 훈련, 제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세분화, 기술적 준비성, 시장 규모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혁신과 기업가정신 요건'은 국가전문가조사(NES)를 통하여 조사되는 항목으로 창업금융, 정부 정책, 정부 창업 프로그램, 창업 교육, R&D 이전, 상업·법률적 창업 인프라, 시장 개방성, 물리

적 창업 인프라, 문화적·사회적 규범으로 구성된다. (GEM, 2022) 본 논문에서는 NES 국가전문가조사를 통해 측정된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요건 12가지가 고소득국가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난 23년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림2-1] GEM의 EFC(Entrepreneurship Framework Conditions) 연구 모형



※출처:GEM Global Report(2014)

2.2.3.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ship Activity)

GEM은 창업 활동을 운영단계에 따라 잠재적 기업가, 창업기업가, 신규기업의 소유 경영자, 기존 기업의 소유 경영자로 구분하며, 창업가가 새로운 사업 활동을 시작하려는 최초에 의도를 가진 후 초기 단계의 창업 준비를 통해 신생기업으로 탄생하고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 나뉜다. (GEM 한국 보고서,2017)

창업 준비부터 42개월 이내의 초기 창업 활동에 관여하는 성인 비율을 나타내는 TEA(총 초기창업 활동) 지수는 전체 성인 인구 중 예비창업자나 신생기업의 기업가 활동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업가적 활동이 국가 경제 성장에 작용하는 영향과 기업가적 활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현숙,2013) GEM의 TEA는 Acs(2006)과 van Stel et al(2007)의 창업 유형에 따라 창업 동기를 ‘다른 대안이 없이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한 경우(생계형 창업)’과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창업한 경우(기회형 창업)’로 구분한다. 김형준(2018)에 따르면 국가 경제발전 수준(1인당 GDP)과 TEA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존재하며 GDP 약 4,800달러까지는 소득 증가에 따라 창업 활동이 감소하나 그 수준을 넘으면 창업 활동인 TEA가 다시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소득 국가와 TEA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창업의 동기는 기회형창업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발전 수준과 창업

활동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GDP 4,000달러 이상의 고소득국가 22개국의 TEA를 자료로 활용한다.

Ⅲ. 자료와 분석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NES에서 조사된 창업생태계의 어떤 요소가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간 GEM에서 조사한 글로벌 데이터를 사용한다. GEM은 전 세계 기업가정신 연구 자료 기관 중 가장 오래되었고 정확한 분석을 위한 20년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가정신 활동 정책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강개석,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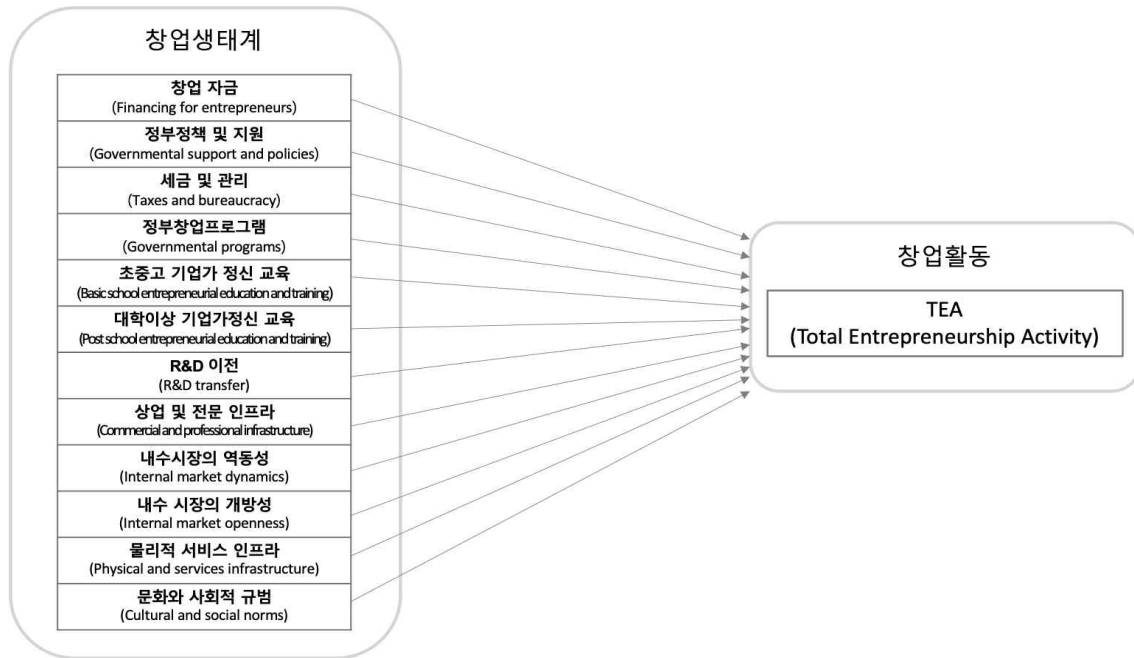
세부 조사항목으로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과 기업가정신 요소에 속하는 NES(국가 전문가) 데이터로 창업자금, 정부 정책 및 지원, 세금 및 관리, 정부 창업 프로그램, 초중고 기업가정신 교육, 대학 이상 기업가정신 교육, R&D 이전, 상업 및 전문 인프라, 내수시장의 역동성, 내수시장의 개방성, 물리적 서비스 인프라, 문화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NES 요소가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총 초기창업 비율을 나타내는 TEA 자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GEM(2022) 글로벌 보고서에서 세계은행(World Bank, 2021) 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한 GDP 4,000달러 이상 Level A에 속하는 고소득국가 22개국이다.

연구를 위한 분석은 SPSS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1차로 시행하였다. 창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창업생태계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 12개와 TEA 종속변수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측정 도구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GEM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설문에 해당하는 NES 데이터 12가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창업 활동성을 나타내는 TEA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창업생태계가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연구 모형은 [그림3-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3-1] 창업생태계가 창업 활동에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변수의 정의는 [표3-1]과 같다.

[표3-1] 변수의 정의

EB1 (Financing for entrepreneurs)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EB2 (Governmental support and policies)	정부의 지원과 정책
EB3 (Taxes and bureaucracy)	창업기업의 세금 및 규제 정책
EB4 (Governmental programs)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EB5 (Basic school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training)	초중고등학교 창업관련 교육 및 훈련
EB6 (Post school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training)	대학교 및 성인 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EB7 (R&D transfer)	신기술 개발 및 민간기업 이전
EB8 (Commercial and professional infrastructure)	창업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거래, 회계 정산 등 제도적 지원
EB9 (Internal market dynamics)	시장의 변화 속도
EB10 (Internal market openness)	새로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범위
EB11 (Physical and services infrastructure)	통신, 운송, 사업장 등 물리적 자원과 접근성
EB11 (Cultural and social norms)	사회적, 문화적으로 창업을 개인의 부와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인식하는 정도
TEA (Total Entrepreneurship Activity)	18~64세 인구 중 설립 42개월 이하 소유 경영인이 운영하는 창업기업의 비율

※출처: GEM Global Report2016), (강개석,2017)

3.3. 측정 대상

2021년 GEM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참여국들은 소득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World Bank, 2021)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국내총생산 (GDP)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이후 처음으로 GEM의 자체적인 낮은, 중간, 높은 소득 정의를 도입했다. 소득 구간별 범주 간의 경계는 임의로 선택되었으며, GDP 상승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고소득국가에 속하고 있다. 구간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Level A : GDP/cap이 40,000달러 이상인 국가
- Level B : GDP/cap이 20,000달러에서 40,000달러 사이인 국가
- Level C : GDP/cap이 20,000달러 미만인 국가

본 논문에서는 GDP 4,000달러 이상 Level A에 속하는 22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국가 목록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GEM 2022 국가소득에 따른 국가분류

Level A >\$40,000	Level B \$20,000-\$40,000	Level C <\$20,000
Austria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China
Cyprus	Croatia	Colombia
France	Greece	Egypt
Germany	Hungary	Guatemala
Israel	Latvia	India
Italy	Mexico	Indonesia
Japan	Oman	Iran
Lithuania	Panama	Morocco
Luxembourg	Poland	South Africa
Netherlands	Puerto Rico	Togo
Norway	Romania	Tunisia
Qatar	Serbia	Venezuela
Republic of Korea	Slovak Republic	
Saudi Arabia	Taiwan	
Slovenia	Uruguay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출처: GEM Global Report(2023)

IV. 분석 결과

4.1 기술 통계량

[표4-1] 기술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EB1	313	2.10	7.18	4.56	.776	.257	.261
EB2	313	2.92	7.47	4.67	.812	.346	-.239
EB3	313	2.50	7.51	4.46	.941	.110	-.419
EB4	313	3.23	7.06	4.95	.787	.118	-.738
EB5	313	2.03	7.58	3.63	.833	1.070	2.097
EB6	313	3.17	7.42	4.85	.641	.470	.377
EB7	313	2.92	6.78	4.51	.644	.568	.529
EB8	313	3.33	7.02	5.41	.686	-.400	.356
EB9	313	2.99	7.80	4.99	.911	.652	.457
EB10	313	3.20	6.93	4.68	.644	.546	.357
EB11	313	3.59	8.52	6.65	.712	-.602	.970
EB12	313	2.49	7.94	4.97	1.076	.586	-.321
TEA	313	1.48	25.52	8.08	3.902	1.170	1.442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총 313개의 데이터 중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각각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각 변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4-1]과 같으며 절댓값을 기준으로 왜도는 3, 첨도는 3 미만을 기록하여 정규성이 입증되었다. (Curran, West, & Finch, 1996)

4.2 상관관계 분석

[표4-2] 상관관계 분석

변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B1	r p	1												
EB2	r p	.167** .003	1											
EB3	r p	.138* .014	.724** .000	1										
EB4	r p	.186** .001	.657** .000	.680** .000	1									
EB5	r p	.113* .047	.391** .000	.536** .000	.390** .000	1								
EB6	r p	.182** .001	.471** .000	.591** .000	.513** .000	.634** .000	1							
EB7	r p	.217** .000	.573** .000	.680** .000	.693** .000	.549** .000	.721** .000	1						
EB8	r p	.192** .001	.167** .003	.498** .000	.487** .000	.483** .000	.623** .000	.600** .000	1					
EB9	r p	.084 .139	.325** .000	.050 .382	-.027 .633	.079 .166	-.093 .101	-.067 .234	-.351** .000	1				
EB10	r p	.179** .001	.451** .000	.617** .000	.584** .000	.584** .000	.563** .000	.646** .000	.628** .000	-.056 .326	1			
EB11	r p	.037 .515	.395** .000	.524** .000	.474** .000	.338** .000	.408** .000	.517** .000	.519** .000	.071 .211	.439** .000	1		
EB12	r p	.192** .001	.266** .000	.383** .000	.187** .001	.533** .000	.488** .000	.419** .000	.503** .000	.097 .085	.352** .000	.413** .000	1	
TEA	r p	.121* .032	.042 .460	.180** .001	.147** .009	.200** .000	.144* .011	.163** .004	.117* .039	.064 .261	.094 .095	.021 .717	.218** .000	1

1차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EB1과 EB2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반면 EB1과 EB9는 $p = .139$ 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회귀분석 결과

2차 분석에서는 12개의 변수가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모형은 유의하였고 Durbin-Watson은 2와 상대적으로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4-3]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TEA				
변수 (상수)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상수)	2.009	.045		
EB1	1.114	.266	.877	1.140
EB2	-4.024***	.000	.273	3.666
EB3	3.079**	.002	.292	3.419
EB4	2.831**	.005	.329	3.036
EB5	1.109	.268	.442	2.262
EB6	-0.119	.905	.345	2.897
EB7	0.962	.337	.293	3.416
EB8	-1.015	.311	.264	3.786
EB9	1.902	.058	.602	1.660
EB10	-1.255	.210	.401	2.496
EB11	-2.44*	.015	.545	1.834
EB12	2.936**	.004	.516	1.939
R ² =.146, Adj. R ² =.111, F=4.262($p < .001$), Durbin-Watson=1.552				

*= $p < .05$, **= $p < .01$, ***= $p < .001$

결과에 따르면 EB3($p < .01$), EB4($p < .01$), EB12($p < .01$)는 TEA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및 관리, 정부 창업 프로그램, 문화와 사회적 규범이 증가할수록 창업 활동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B2($p < .001$)와 EB11($p < .05$)은 TEA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부지원과 정책, 물리적·서비스 인프라가 증가할수록 창업 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TE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EA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관리 요인은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세제부담 완화, 연대보증 폐지, 창업비자제도 확대, 공공구매제도 도입, 창업사업 개편 등으로 창업기업의 활성화에 있어 실제적인 조세 혜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홍은영, 2023) 정부 창업 프로그램 요인은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이 창업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창업지원 프로그램 요소는 창업프로젝트 도출,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 창업 준비 공간 및 창업자금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Gartner&Vesper, 1994) 마지막으로 창업 문화와 규범적 요소는 창업 친화적

인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생태계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홍은영,2023)

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고소득국가의 창업 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지니는 요소를 도출하여 향후 중·저소득국가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참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세금 및 관리, 정부 창업 프로그램, 문화와 사회적 규범이 창업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단기적 정책만이 아닌 사회의 전반적인 창업생태계가 기업가정신과 창업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저소득국가 정부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단기적인 창업지원 수립보다는 장기적으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GDP 4,000달러 이상의 고소득국가에서는 정부지원과 정책, 물리적·서비스 인프라가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창업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창업생태계 요소 중 창업 활동과 상관관계를 지닌 요소를 도출하여 더욱 적극적인 창업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연구의 의의를 지니지만,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생한 외부의 요인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창업 활동 요인을 나타내는 TEA의 내외부 동인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실제 창업 환경과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하여 더욱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한다면 향후 소득분위별 국가 정책의 제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환 (2020), 「대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창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경환·이지훈 (2021), 「기술자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씨이오메이커
- 김형준 (2018), “국가 특성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 6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2022년 국내 유니콘기업은 22개사”,
<https://www.korea.kr/briefing> (2023.02.09.)
- 류시균 (2008), “로짓모형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6(1), pp.113-126.
- 문상영·김중호 (2018), “창업생태계가 창업기회의 인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GEM 자료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0, No. 1, pp. 261-274
- 박선영 (2019), “Intrapreneurship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GEM DATA를 중심으로”
- 반성식외 (2013), “한국의 기업가정신 활동 : 2013년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를 중심으로 국제비교”, 한국창업학회지 제9권 제4호 242-290
- 배종태 (2022), “한국의 기업가정신 발전과정-이론과 실제-”, 「기업가정신연구」, 제3권 제2호 1-19
- 이민규·이윤준 (2013), “기업가 정신이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GEM 자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4호 217-234
- 이채원외 (2018),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2017 한국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한국청년기업가재단
- 이현숙 (2013),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 통권 191호 22 - 33
- 중소벤처기업부 (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 홍은영,최종인 (2023), “한국 창업생태계 8년간의 변화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기업가정신지수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제18권 제4호
- Acs, Zoltan, Carlson and Charlie Karlson (1990), “Entrepreneurship,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Macroeconomy”, Cambridge Press
- Acs, Z. J. (2006). How is entrepreneurship good for economicgrowth?. Innovations, 1(1), 97-107.
- Amorós and Bosma (2013), "Ten years of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Venturing*: January 2013, Vol. 5 p120-152, 33p
- Audretsch, D. B. and Thurik R. (2001), “Linking Entrepreneurship to Growth,” *OECD STI Workingpapers* 2001/2
- BBC NEWS 코리아 (2023), “미국 은행 '퍼스트시티즌스', SBV 인수“
- Curran, West, & Finch (1996): |왜도| < 2, |첨도| < 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ve Valliere (2010), "Reconceptualizing entrepreneurial framework conditions". *Int Entrep Manag J* (2010) 6:97-112

- Gartner, W. B. (1989),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27–37
- GEM (2001–202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0–2023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GERA)
- Minniti M·Bygrave W D et al (200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5 executive report, Babson City, MA: Babson College
- OECD (1994), "Job Study : Fact, Analysis and Strategies", OECD
- Salgado–Banda, H. (2005),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Analysis," Direccion de Estudios Economicos Direccion Gdneral de Investigacion Economica Banco de Mexico
- van Stel, A., Storey, D. J., & Thurik, R. (2007). The effect of business regulations on nascent and young business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71–186.